

문화특종

# 정읍 칠보물놀이장 '인기'

### 정읍 향토문화유산 6건 추가지정

정읍시는 지난 26일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위원장 나종우)를 열어 '정읍시 향토문화유산' 6건을 추가 지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사발릉문 작성 터(고부면 신중리 562-1), 동학혁명 모의탑(고부면 신중리 산 16), 만석보 역사 선정비(이평면 하승리 197-1), 동의 기념비(산외면 오희리 193), 일제 이항선생 유허비(태인면 태사리 399-1), 태산사(영원면 은선리 103-1) 6건을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이로써 정읍시는 국가지정문화재 16건, 도지정문화재 63건, 등록문화재 8건, 전통사찰 10건, 향토문화유산 5건 등 총 102건에서 이번 향토문화유산 6건이 추가돼 모두 108건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문화역사의 고장 정읍의 위상을 재확인시켰다. /정읍=김대환 기자

### 김제보건소, 취약계층 폭염예방 앞장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박래만)는 보건진료소를 통해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강관리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시보건소는 취약계층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김제시 보건진료소(25개소)가 7월부터 9월까지 무더위 관련 폭염대비 집중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진료소(25개소)에서는 방문한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고 폭염예방 9대 건강수칙을 교육하고 있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폭염주의보나 경보발령시 안부전화와 가정방문 등 수시로 건강모니터링과 폭염 예방 대응요령을 적극 교육하고, 피해환자의 조기발견과 응급의료기관 연계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해 건강한 여름나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 성덕면, 지진대피요령 교육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형순)은 지난 26일 7월 17일 지방위 특성화 훈련 일환으로 지진대피요령 교육을 성덕면사무소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진발생 시 대피요령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론교육으로는 집안 대피요령, 야외 대피요령, 지진발생 시 화재대피요령, 엘리베이터 대피요령, 자동차 운전 중 대피요령, 부상자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을 부면장 설명으로 진행됐으며, 실기교육은 실습 위주로 지진발생 시 대피훈련 행동요령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내달 21일까지 운영... 유아용 물놀이장·물테마전시관도 있어

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이하 칠보 물놀이장)이 물놀이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날 초 주말 개장을 거쳐 15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 칠보물놀이장은 바다슬라이더와 워터터널, 워터바스켓 등이 설치돼 있어 물놀이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유아용 물놀이장도 별도로 갖춰 젊은 부모들이 많이 찾고 있고, 물놀이장 수질이 깨끗해 정읍시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 찾는 이들도 많다.

특히 물놀이장 인근에 물을 주제로 한 2층 규모의 물테마전시관도 있어 물에 대한 학습과 체험도 가능하다. 이곳에는 물의 순환과 이용에 관한 각종 사진 및 기구들이 전시돼 있다.

칠보물놀이장은 내달 21일까지 운영된다.

월요일 휴장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하고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정읍시민의 경우 어린이 2천원, 청소년 3천원, 성인 4천원이다. 정읍시 거주여부는 입장권 발매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정읍 칠보 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이 물놀이 명소로 인기만점이다.

정읍시민 외 거주자는 어린이는 4천원이고 청소년 5천원, 성인 6천원이며,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에는 거주에 관계없이 20%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12개월 영유아는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1~3급) 및 보호자 1인, 기초생활 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와 그린카드 소지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시 50%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장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물놀이장과 그늘막을 정비하고 바다슬라이더 탑승계와 여과시설을 보충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부면 군자정에 연꽃 '활짝'

#### '연정(蓮亭)'이라고도 불리

정읍시 고부면 군자정(전북유형문화재 제133호) 연못에 연꽃이 활짝 피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고부면 관계자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고부면사무소 앞 연못 가운데 있는 군자정과 홍백색 연꽃이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며 "많은 분들이 찾아 폭염 속에서도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는 연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자정은 예로부터 고부고을의 운세와 관련된 설화가 내려오는 유명한 정자로 '연정(蓮亭)'이라고도 부른다.

연정이란 정자가 연못의 한가운데 자리해 있고, 사방이 온통 연꽃으로 둘러싸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자의 이름이 연정에서 군자정으로 바뀐 것은 연꽃이 '꽃 가운데 군자'라는 옛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설에 따르면 조선중엽 이후 이 정자가 황폐하여 고부고을의 인제가 나지 않아 1673(현종14년)에 고부군수 이후선이 연못을 파내고 정자를 새로 고치니, 홍백색 연꽃이 자생하고 과거급제자가 많아 졌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그 후 1764년(영조40년)에 군수 이세형이 증건했고, 1990년초 다시 고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교육

### 부안유통새영농조합법인에서 군 농업 관련부처 직원 20여명에게

부안군이 농산물 명품화 생산·판매 전략을 마련하려고 부안유통새영농조합법인에서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교육을 실시 농가소득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난 26일 부안의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부안유통새영농조합법인 임장섭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부안군 농업

관련 부처 직원 20여 명에게 유통·마케팅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날 임 대표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정성스럽게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전국 어디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려면 생산자 조직화와 통합 마케팅을 통해 규모화·조직화·현대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후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우

리 농산물 판로와 부안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작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유통 전문가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장섭 대표는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6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됐다. /부안=이옥수 기자



###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 무더위쉼터 등 점검

이승복 김제 부시장은 27일 관내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물놀이시설 등을 현장 방문해 냉방기 가동여부, 안전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폭염에 대비하여 취약계층과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는 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이었다.

특히 금산면 3개의 무더위쉼터와 금산리 물놀이 시설을 방문한 이승복 부시장은 "무더위 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냉방기 및 건강관리 철지당부와 물놀이 시설에서는 가족과 아이들이 놀러오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한편 김제시에서는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 특별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261개소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여 냉방비 지원을 완료하였고, 이·통장회의시 폭염대응 행동요령 교육과 폭염특보시 문자메세지 발송, 시내 인구밀집지역에 살수를 실시하는 등 폭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정보화농업인 연구회, 도 경진대회 '우수상'

### 김용환, 블로그 포스팅·고한석, 사업계획서 '최우수상'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6회 전북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 참가해 개인부분 블로그 포스팅과 사업계획서 발표 2개 부분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단체분야에서 '새만금 김제 대박이야!'라는 주제로 멋진 퍼포먼스를 펼친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북의 열정, 업

로드 하는날' 콘셉트로 농업인의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지난 6월27일~30일 개인전 부분이 개최되었고, 7월22일 본 행사가 치러졌다.

블로그 포스팅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용환 대표와 사업계획서(PPT)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한석 대표는 김제시 정보화 농업인

연구회 회원이며, 정보화 농업인 연구회는 김제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화 교육을 이수한 75명으로 구성되어, 매주 화요일 자율학습을 통한 노력으로 카페, 블로그를 통해 전자상거래 매출을 향상시키는 선도농가들이다.

김제시 농촌지원과 관계자는 "e-비즈니스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특히 모바일 앱 활용분야도 계획하고 있다"며 정보화 교육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어울려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 익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잘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 750ml 1ea/12%

GIFT SET 4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375ml 5ea/13%

GIFT SET 6 500ml 1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 375ml 2ea/13%

TEL : 063-694-8990  
www.gangsanwine.com